남원 흥부제, 오늘 팡파르

13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원… 공연, 먹거리 프로그램 강화

남원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인 제27회 흥부제가 우애, 나눔, 보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1일부터 13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개최된다.

올 흥부제는 '흥부(興富)가 돌아왔다'라는 테마로 4개분야 21개종목의 다양한 공연과 풍성한 먹거리로 꾸며지며, 방문객의 만족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공연, 먹거리, 가족관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행사장도 확장하는 등 많은 변화를 추진했다.

먼저 축제장 곳곳에서는 흥부제만의 흥을 나타낼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쉴 새 없이 펼쳐질 예정으로, 마마무, 하성운(워너원), 변진섭, 정수라, 미스트롯(숙행, 김소유) 등이 출연하는 '개막 축하공연'을 비롯해 깊은 가을밤의 정취를 느끼게 해줄 노사연, 오승근, 양혜승 등이 출연하는 '흥부樂놀부樂 한마당', 강남제비가 들려주는 퓨전 마당극 '흥부가 돌아왔다' 등이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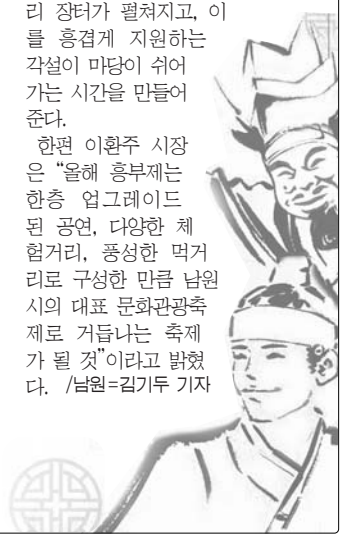
또한 가족을 위한 아동극 지지배배지지배배 및 흥부가면을 쓰고 참여하는 시민노래자랑 흥부가왕, 놀부보다 더한 옹고집의 고집 놀부보다 더 못된 옹고집전, 국악예술고에서 준비한 가왕 송흥록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참여형 체험을 위해 사랑의 광장에 가족 쉼터와 흥부놀이터 및 각종 체험부스와 장터가 마련되며, 관객과 함께 만들어가는 남원 대표공연 신관사또 부임행차, 퓨전 마당극 변사극 춘향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좀도리쌀 모금을 통해 모인 쌀을 '흥부사랑 떡 나눔 행사'를 통해 이웃과 나고, 가족간의 화목과 이웃과의 정을 장려하기 위한 흥부가족상도 수여한다.

이외에도 남원농악을 한자리에서 다채롭게 만날 수 있는 '제21회 흥부골남원농악경연대회'를 비롯해 흥부가의 대가 강도근 소리꾼을 기리는 제27회 금파 강도근 전국판소리경연대회, 남원예술단체의 작은축제 제36회 남원예술제' 및 전북에어로빅스체조 대회가 개최된다.

월매야시장팀과 쑥쑥농부들, 남원예촌 꽃담장 셀러가 남원지역에서 판매되고 있는 먹거리를 사랑의 광장 주차장에 마련된 먹거리 장터가 펼쳐지고, 이를 흥겹게 지원하는 각설이 마당이 쉬어가는 시간을 만들어 준다.



한편 이환주 시장은 "올해 흥부제는 한층 업그레이드된 공연, 다양한 체험거리, 풍성한 먹거리로 구성한 만큼 남원시의 대표 문화관광축제로 거듭나는 축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 생활SOC복합화 공모 성과 빛났다

총 3개사업 선정, 국비 54억 8200만원 확보

순창군이 국무조정실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하 균형위)가 주관한 2020년 정부 생활SOC복합화사업 공모에 가족센터,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체육센터, 동계종합체육관 등 당초 신청했던 3개 사업이 모두 선정되면서 국비 54억 8200만원을 확보하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은 국무조정실과 균형위, 각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복수의 공공시설을 그동안 별도의 부지 및 공간에 따로 건립하던 방식을 벗어나,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주차장 등 10종의 시설을 한 공간에 모으는 사업이다.

군은 지난 1월부터 노홍래 부군수를 단장으로 생활SOC 추진단을 구성한 후 사업 발굴을 위한 행정력을 집중하여 지난 7월 3개 사업을 신청했다. 이달 초 균형위 발표결과 도내에서는 정읍시 4개 사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사업이 선정되는 성과를 얻었다.

▲순창군 가족센터는 순창읍 향토회관 뒷편에 건립 예정으로 사업비 65억원(국비 18억2000만원)이 투입되어 가족센터, 작은도서관, 주거지주차장이 조성되며 ▲순창 세대통합형 실내놀이문화 체육센터는 민속마을 인근 투자선도지구내에 건립 예정으로 사업비 41억원(국비 13억1200만원)이 투입되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와 작은도서관이 조성된다.

▲동계면종합체육관은 동계면 소재지에 건립예정으로 사업비 52억7000만원(국비 23억5000만원)이 투입되어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와 생활문화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주거지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선정된 3개사업은 연말까지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에 걸쳐 단계별로 추진되며, 우선 시설공사부터 착공에 들어간 후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등 부속 복합화 시설 조성사업 순으로 진행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공간 건립

남원시, 98억원 추가 확보… 국민체육센터 조성 순조

지리산권의 중심도시인 남원지역에 생활SOC 복합화 공간이 건설된다.

남원시가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사업예산으로 98억원(국비 49억)을 추가 확보하며, 생활SOC 문화체육공간 확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춘향골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조성사업(85억), 배드민턴장 조성사업(30억), 게이트볼장 신축사업(30억) 등이 보다 순조롭게 추진될 전망이다.

지리산권 생활SOC 복합화 사업은 국민체육센터인 수영장을 기반으로 2~3층에 생활문화센터, 청소년 문화공간 등을 시설하는 복합화 사업으로, 이번 예산확보로 시내권과 30km 이상 떨어지면서 생활SOC 시설이 절대 부족했던 지리산 동부권의 균형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남원시는 생활SOC 복합화 공간을 통해 인구 증가에 기여하고 그동안 지리산권 10개 학교 680여명의 학생들의 숙원이었던 청소년 공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수영장과 연계한 학교 생존수영과 노년층 건강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주체들의 창업보육 공간조성 등을 통해 많은 사람이 모이고 다양한 활동이 이뤄지는 생활혁신 공간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N치즈축제 국화꽃 경관 인기

한글날 등 나들이 인파에 주차공간 부족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끝났지만, 천만송이가 넘는 아름다운 국화꽃 경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인파가 이어지면서 축제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열린 임실N치즈축제에 역대 최대 인파가 몰려 대성공을 거둔 가운데 이후에도 임실치즈테마파크를 가득 메운 국화꽃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연일 북적이고 있다.

올해 임실N치즈축제는 끝났지만, 천만송이가 넘는 아름다운 국화꽃 경관을 보기 위해 수많은 관광인파가 이어지면서 축제열기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9일인 한글날에는 임실치즈테마파크에 주차공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찾아 인산인해를 이뤘다.

축제 기간에 미처 방문하지 못한 관광객들이 대거 방문하면서 임실치즈테마파크는 온 종일 축제장을 방불케 할 만큼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국화꽃 조경의 백미인 치즈캐슬 앞 메인 국화경관과 무지개 다리 등 일대에는 사진을 찍는 사람들로 붐비면서 긴 줄을 서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또한 구워먹는 치즈와 치즈아이스크림 등을 사먹기 위한 관광객들로 치즈판매장 앞은 줄을 서는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군은 축제기간 동안 약 42~43만여명의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은 것으로 잠정 추산한 가운데 이번 주말과 다음 주말을 거쳐 많은 관광객이 방문,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실=진홍영 기자

순창읍 경천 주변 벤치 새단장

순창읍 경천주변 20여개의 벤치가 제14회 장류축제를 맞이해 새롭게 단장했다.

이번 벤치 새단장에 나선 자원봉사자들은 총 10명으로, 순창군농업기술센터(소장 설태송)에서 농촌생활 평생학습 교육으로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목공예품 제작 실습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이다.

봉사에 나선 교육생들은 "배움으로 습득한 재능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기로 자발적으로 협의하여 지난 9일(한글날)에 이번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은 군민들의 대표 산책로인 경천변을 걸으면서 경관을 만끽하고, 잠시 벤치에 앉아 쉬어가는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벤치를 새롭게 단장함으로써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메아리

강진면 맞춤형 원스톱서비스 제공

임실군 강진면은 10일 천담권역 방문자센터에서 '강진권역 찾아가는 행복임실 누리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행복임실 누리단은 임실군 민선7기 효심행정의 일환으로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소외지역 노인들을 직접 찾아나서 여가, 복지, 위생 등 다양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주는 원스톱 서비스다.

이날 강진면행복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 윤홍식 , 강준희), 덕치면 행복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엄참회, 박정규)가 주축으로 강진면 복지팀과 덕치, 청웅 복지담당자들이 행사를 마련했다.

더불어 군 보건의료원, 임실군 자원봉사센터, 임실군 사회복지협의회, 덕치면 의용소방대, 덕치면 복지이장단 등 다양한 기관 단체와 주민 등 200여명이 참여 속에 민관 협력으로 분야별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행사에 참여한 주민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원의 한방진료, 구강검진, 치매검진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을 예방 치료했다.

군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내손으로 만드는 방향제, 군 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예쁜손 고운손 마사지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순항

남원시는 지난해 가을부터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담을 덜고, 농업의 현대화와 다양한 농림사업을 위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시는 그동안 농민들의 50ha 미만의 경지정리사업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전북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어 시비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거뒀다.

이번 사업은 이환주 남원시장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11지구 124ha에 대해 먼저 시비를 투입해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을 연차 계획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동의율 100% 지구인 수지면 갈촌지구, 포암지구, 왕정동 화정지구 3개 지역 42ha에 대해 시비(29억원)를 책하고 2019년 봄 마무리사업을 추진한 결과 결실을 맺으며 수확을 앞두고 있다.

또한 올해 가을착수지구 운봉 매요, 대산 독산, 금지 입암, 아영 부동 4개지구 46ha 에 대해서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 관계자는 "문화재 지표조사, 주민설명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추진, 2020년 경작에 지장이 없도록 봄 마무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